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 SCHUBERT AND BRAHMS

피아노  
박종혜

슈베르트와  
브람스



지휘  
박진익

Schubert | Symphony No.4  
in c minor, D. 417 'Tragic'  
슈베르트 | 교향곡 제 4번 다단조,  
작품번호 417 '비극적'

Brahms | Piano Concerto No.1  
in d minor, Op. 15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라단조,  
작품번호 15

11.28

THU 7:30PM



고맙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심포니 S.O.N.G 이사진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문형주

부이사장  
안정근

이사  
송백규  
이경혜  
이주현  
김희련

감사  
김일규

낮은 소리  
LOW VOICES

권상준  
김태규  
백수인  
오승훈  
윤정웅  
장명식

2023 - 2024시즌 연 회원 후원자 명단

마에스트로 Circle

노루그룹  
하나은행

마스터즈 Circle

(주)EG

말러 Circle

한영재  
(유)세봉  
(주)에프에스티  
(주)티에스이

브람스 Circle

(주)디에스케이  
(주)GFS  
(주)골프존  
어스빌리지

브루크너 Circle

김석수  
신승일  
전동규  
(주)다진

슈베르트 Circle

김창석  
이경혜  
윤정웅  
(주)면사랑  
(주)세아제강  
(주)제이씨케미칼  
(주)풍산  
영앤진세무법인

베토벤 Circle

김윤자  
최영애  
장원기  
한태준  
홍종관  
(주)동효

쇼팽 Circle

안정근  
송백규  
최승식  
(주)KNW

모차르트 Circle

서석호  
신영만  
양서윤  
양세이  
원장희  
윤석애  
전홍구  
한수향  
한정숙  
엔피코리아  
법무법인산경

하이든 Circle

고윤영  
권영성  
권용관  
김성렬  
김종혁  
김호진  
박명우  
봉욱  
신갑순  
윤현숙  
이근혁  
이미영  
이병권  
장민경  
장윤정  
전인평  
조백일  
최승갑  
최인규  
한문성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

# 심포니 S.O.N.G

‘심포니 S.O.N.G(심포니송)’은 지휘자 함신익이 창단한 민간 주도 오케스트라입니다.  
지휘자 함신익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및 미국 유수의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거쳐 유럽, 남미, 아시아 등 다양한 오케스트라에서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4년 8월, 지휘자 함신익은 후원자들과 음악가들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Symphony Orchestra for the Next Generation>의 첫 자를 탄 <함신익과 심포니 S.O.N.G> 창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심포니송은 뛰어난 연주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광범위한 사회공헌 연주 등 차세대 오케스트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발전하며 각계각층의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한 책임이라는 함신익의 신념과 음악을 사랑하는 후원자들의 애정 어린 응원이 이뤄낸 결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 MISSION

- 대한민국 오케스트라의 통상적인 운영 체계를 뛰어넘어, 민간기업과 개인들이 후원자 인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것을 지향한다.
- 진정한 예술정신을 발휘하여 클래식 음악이 주는 귀중한 메시지를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음악을 통해 따뜻한 기적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나눔의 오케스트라로 자리 하여 지역사회를 활기치게 한다.

### VISION

- 뛰어난 기량을 가진 음악가들이 입단하여 프로연주자로서 최대 5년을 활동하면서 다음 세대에 필요한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 국내 최고의 홀에서 진행되는 고품격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한 최상의 연주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한다.
- 유의미한 해외 연주를 통해 국제적 트렌드를 리딩하는 선도적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 VALUE

- 오케스트라의 효율적 운영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한국 메세나 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에서 노루홀딩스와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였다.
- 서울시의 전문예술단체로 선정되었다.

# 슈베르트와 브람스



Franz Schubert  
(1797~1828)

## Symphony No.4 in c minor, D. 417 'Tragic'

프란츠 슈베르트 : 교향곡 4번 다단조 "비극적", 작품번호 417

- I. Adagio molto - Allegro vivace ..... 매우 느리게 -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II. Andante ..... 편안한 걸음걸이로
- III. Allegro vivace - Trio ..... 매우 빠르고 생기있게 - 트리오
- IV. Allegro ..... 활기찬 빠르기로

### Intermission



Johannes Brahms  
(1833~1897)

## Piano Concerto No.1 in d minor, Op. 15

요하네스 브람스 : 피아노 협주곡 1번 라단조, 작품번호 15번

박종해, Piano

- I. Maestoso ..... 장엄하게
- II. Adagio ..... 느리게
- III. Rondo. Allegro non troppo ..... 론도. 적절한 빠르기로



## 심포니송의 프로들



<b>예술감독</b>	함신익				<b>플루트</b>	김연수	김자영		
<b>바이올린</b>	*송지원	박진형	강은실	김민하	<b>오보에</b>	송보미	김소정		
	김지연	김희영	문수빈	박지윤	<b>클라리넷</b>	이환희	김리후		
	배유경	오지홍	오하은	유연주	<b>바순</b>	김윤지	이승은		
	유지혜	이화진	전지은	정예린	<b>호른</b>	조종현	김보람	김효정	주혜준
	조현진	천나은	최송아	최주은	<b>트럼펫</b>	이진규	이혜진		
홍석기	홍예슬			<b>팀파니</b>	황영광	김신영			
<b>비올라</b>	서예슬	김효경	안예림	윤소은	<b>크리에이티브팀</b>	신현숙	고부현	구현정	김소정
	이예림	장윤정				유소정	이수민	이창훈	
<b>첼로</b>	홍보경	김욱	오소연	이예인					
	이혜인	정다인	정혜솔	최영					
<b>더블베이스</b>	고부현	강선률	윤영진	임희진					
	최현유	Friedemann							

\*약장 ※명단은 악장/수석/부수석 외에는 가나다순 정렬입니다.

**사명 의식이 깃든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의 고군분투는 실상은 예술을 접하는 유니크한 태도와 시선에 닿아 있다.

사춘기 시절, 인상 깊게 관찰한 선교사들의 행적이나 실향민인 부모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은 오늘의 함신익을 형성하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 가난하지만 신실했던 소년 시절의 경험은 그가 성장해 가며 생성된 보석 같은 사명 의식이 된다.

함신익은 한국에서의 학업과 군 복무 후, 미국 라이스대학과 이스트만 음악학교에서 지휘, 피아노, 성악, 이론 그리고 음악사를 배웠다. 그의 열정은 미국의 토양에서 발휘하게 되는데 재학시절 직접 구성한 오케스트라를 운영

하였고, 철학과 지휘 경험을 극대화하며 프로 지휘자로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구축했다. 심지어 아스펜의 여름 음악캠프에서도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등 거침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을 쏟아부었다.

30대 초반까지 함신익은 미국에서 학업에 열중하였고 이후 세계 지휘콩쿨에 입상하며 1992년부터 프로 지휘자로 데뷔했다. 미국의 그린베이 심포니, 에블린 필하모닉, 타스카루사 심포니, 밀부룩 오케스트라 등 중·소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오케스트라 부흥사’라는 별명을 얻어가며 주목받는 지휘자로 성장했다.

37세부터는 예일대 지휘과 교수로 재직하면

서 23년간 후학양성에 몰두했다. 그가 키워낸 제자들은 유럽, 미국, 아시아의 중요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의 지도를 받은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세계 메이저 오케스트라에서 어렵지 않게 발 견할 수 있다.

**세계가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음악의 길 제시**

지휘자 함신익은 대전시립교향악단(2001-2006)과 KBS교향악단(2010-2012)의 예술 감독, 음악감독으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중흥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그의 능력을 증명해 냈다.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UN 본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보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김멜센터, 스페인 빌바오, 말라가 심포니홀, 시애틀 베나로야홀, 볼티모어 마이어호프홀, 워싱턴DC 케네디센터, 독일 캄니츠 주립극장, 독일 북서 지방의 콘서트홀들,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 브장송 오페라하우스, 아비뇽 오페라하우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란츠리스트홀, 체코 프라하 드보르작 루돌피움, 스메타나홀, 베이징 국립대극장, 상하이 오페라하우스, 도쿄 오페라시티홀, 오사카 심포니홀, 폴란드 바르샤바 심포니 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쇼이홀, 태국 방콕 마이돈홀, 몽골 울란바토르 국립극장 등과 그 밖의 많은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하였거나 그곳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였다.

최근 행보는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우루과이 등 남미의 오페라와 오케스트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전형적인 열정과 섬세한 지휘가 남미 연주자와 청중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청두, 항저우, 구이양, 칭다오 등 중국 대도시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을 받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10일,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쓰촨성 심포니홀 개관 공연을 선보였다. 쓰촨성 음악가협회 명예회장이자 유명 작곡가인 아오창쿤 교수는 “함신익 지휘자가 쓰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며 장엄한 추진력과 강한 예술적 매력으로 청중을 놀라게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박종해**

**심포니 송의 첫인상**

함신익 선생님과 심포니 송과의 첫 만남은 2020년입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 연주하고 싶었던 작품인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함께 음악을 만들어 주셔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은 좋은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연주는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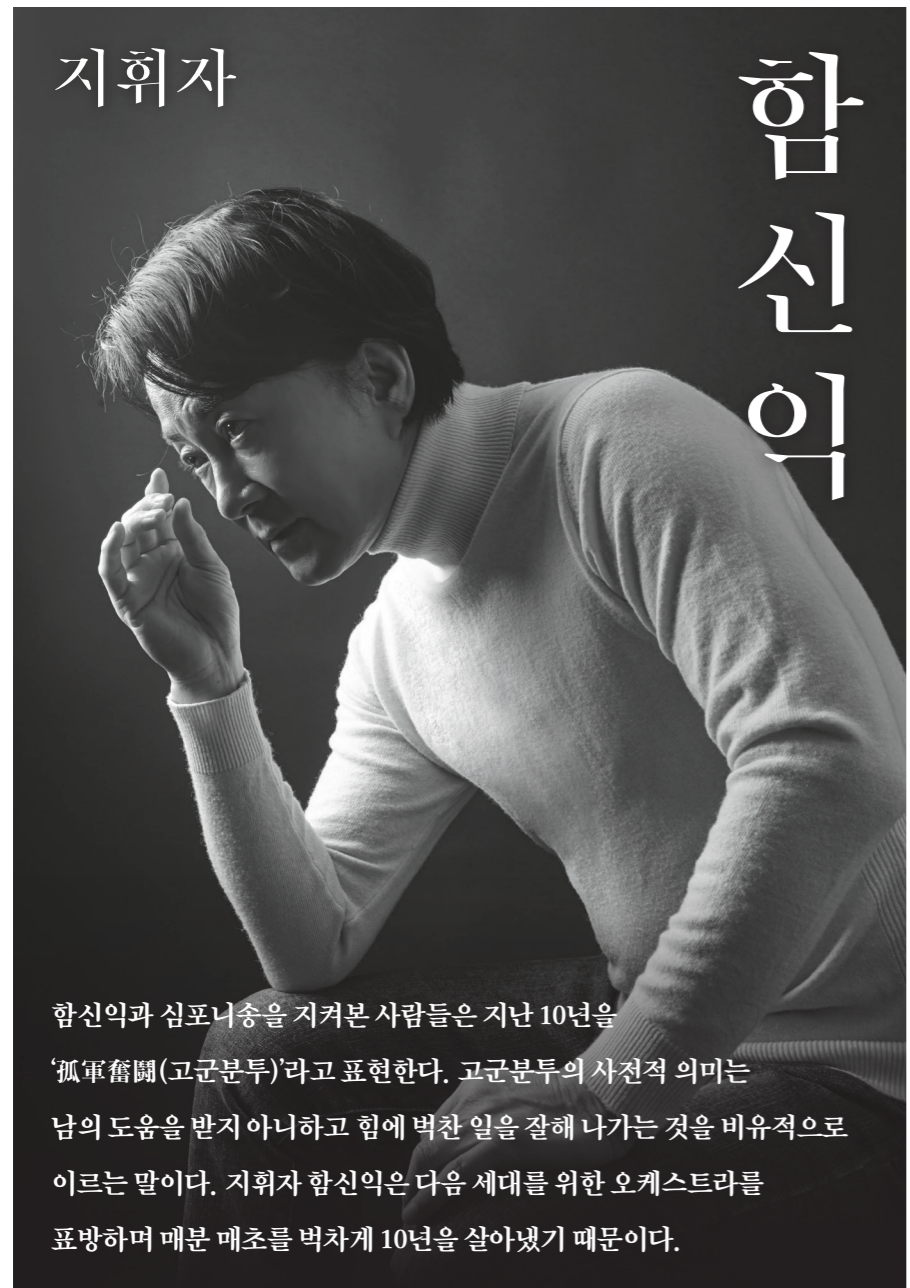
올해도 정신없이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 기억나는 연주라고 한다면 그토록 하고 싶었던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한 것과 10월 17일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독주회인 것 같습니다. 10월 독주회는 나름 파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인지 기억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심포니 송과의 협연에 대한 기대와 준비**

유럽에서는 많이 협연한 바 있으나 한국에서는 단 한번도 연주하지 않았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선보이게 되어 굉장히 기대되고 떨리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항상 심포니 송과의 협연은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곡들로 진행하게 되네요.

**앞으로의 연주 계획**

정말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윤소영씨와 두 번의 연주가 있고, 내년 1,2월에는 유럽에서의 리사이틀 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자 함신익**

함신익과 심포니송을 지켜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을 ‘孤軍奮鬪(고군분투)’라고 표현한다. 고군분투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힘에 베풀 일을 잘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지휘자 함신익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케스트라를 표방하며 매분 매초를 벅차게 10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 “강한 내면과 진심 어린 감성을 모두 표현해내는 최고 수준의 연주자”라는 극찬과 함께 2018년 제1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한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국내는 물론 스위스, 독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건반 앞에서 자유롭게 펼쳐내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평단의 호평을 자아낸다.
- 대담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각광받는 피아니스트 박종해는 더블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최연소로 준우승하며 최우수 협주곡 연주 특별상 및 최우수 모차르트 연주 특별상을 함께 수상하였고,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 이탈리아 에판시에서 수여하는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상, 노르웨이 트롬소 Top of the World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19년에는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를 역임하며 독보적인 상상력과 개성 있는 음악을 선보였다.

- 박종해는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나고야 필하모닉,

홍콩 체임버 오케스트라, 로열 왈로니 체임버 오케스트라, RTE 국립 심포니 등과 협연은 물론, 마린 알샬, 크리스토퍼 워렌그린, 크리스티안 차하리야스, 게르하르트 마크손, 존 윌슨 등 세계 유수 마에스트로와 한 무대에 올랐다. 또한 취리히 톤할레, 뮌헨 가슈타익,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프랑크푸르트 알테 오페, 파리 루브르 오라토리오 등 유럽을 대표하는 무대에서 독주회를 선보였고, 프랑스 안시 뮤직 페스티벌, 노르웨이 노드란드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JONGHAI PARK, PIANO**

# 비극에 대한 두 이야기

## Franz Schubert Symphony No. 4 in c minor “Tragic”, D. 417

슈베르트  
교향곡 4번 다단조 “비극적”,  
작품번호 417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31년간의 짧은 생을 살다간 프란츠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그는 무려 988개의 다양한 작품들을 작곡할 만큼 다작가(多作家)였지만 그의 삶은 병약함과 가난으로 채색된 소위 '불운한 무명 천재 예술가'의 전형(典型)을 그대로 따른다. 조울증 환자에 폭음과 알코올 중독 및 매독으로 평생 고생할 만큼 소위 방탕한 삶의 소유자였던 그는 음악에 있어서만 큼은 그 누구보다 순수하였으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음악적 어휘는 어느 클래식 음악 작품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진솔하며 그 메시지에 내재된 순수한 동심(童心)은 매우 특별하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독일 예술 가곡(Lied)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690편에 이르는 주옥같은 노래를 남기는데 주로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등의 무거운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정갈한 음악적 수사(修辭)가 주제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체념을 넘어서 승화된 감성이 곡을 가득 채운다. 19세기 리트(Lied) 독일 가곡 형식을 확립하였는데 이는 오래된 오페라 아리아 관습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예술 가곡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13세에 작곡을 시작하였고, 15세에는 최초의 서곡을 썼으며 16세에 교향곡을 작곡한 이래 계속하여 교향곡 2번과 3번, 가곡 '물레 감은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 D.118 No.2)', '마왕(Erlkonig, D.328)', '들장미(Heidenröslein, D.257)' 등을 작곡하였는데, 18세 때 까지 이미 140곡이나 되는 탁월한 곡을 써냈음은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유년시절에 견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학창시절 지속적이고 체계화된 음악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년시절에 한해 취미의 목적으로 받은 악기 레슨과 합창단 단원으로서의 성악 경험이 음악 교육의 주를 이루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제한된 경험 탓인지 구성이 복잡하고 길이가 긴 작품보다는 주로 가곡과 실내악 소품에서 특출한 창의적인 면모를 보인다.

당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의무 군복무를 일정 기간의 교사 근무로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슈베르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14년부터 약 4년간 아버지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조교사로 일하게 된다. 음악 교육으로부터 멀어져버린 이 다소 실망스러운 기간 동안 그는 오히려 약 125개 가곡과 50개 이상의 기악곡을 쓰는 기쁨을 토한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4번은 이 기간 중 그가 19세가 되던 1816년에 작곡된 것으로 그의 9개의 교향곡 중 8번 미완성 교향곡과 더불어 유일한 단조(minor key) 조성 곡이며 생전에 연주되지 못한 곡이다. 그는 작품을 완성한 후 '비극적(悲劇的)'이라는 부제를 붙인다. 여기서 '비극'은 암울한 생의 처절한 회고(回顧)나 치열한 철학이 투영(投影)된 것이라기보다는 창의성이 넘쳐흐르는 19세의 청년에게 주어진 제한된 음악 교육 및 이로 인한 자신의 작곡 기술적 한계(대규모 곡에 대한 구조적 설계 및 대위법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일시적 자조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차이코프스키나 베토벤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창작에 대한 넘치는 열정과 예술혼이 작품 전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역설적이게도 곡은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활기차다. 그는 이곡에서 베토벤, 모차르트, 그리고 하이든의 작곡 기법을 연구,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상과도 같은 선배 작곡가들에 대한 오마주(homage)로 해석할 수 있다. 작곡에 있어 그의 이러한 솔직하고 겸손한 자세는 그의 최후의 교향곡 9번에까지 이어지는데, 베토벤을 숭상(崇尚)하며 동시에 교향곡에 있어서 그에게 일종의 열등감을 가졌던 슈베르트는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음악 언어를 베토벤식 동기 발전 작곡기법으로 극대화하여 총체적이며 엄격한 구조미를 교향곡 제 9번 "The Great"에서 충실하게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초연은 그의 사후 20년이 지난 1849년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졌다.

1악장 ————— Adagio molto-Allegro vivace  
느린 도입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에서 '혼돈의 표상 서곡' (The Representation of Chaos overture to The Creation oratorio)을 모델로 하였다. 강력한 투티(tutti)의 'C' 음 제창이 울려 퍼지고 이후 서주부 주제가 소개되는데, 이는 하이든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 Franz Schubert Symphony No. 4 in c minor “Tragic”, D. 417

The Symphony No. 4 in C minor, D 417, is a symphony by Franz Schubert (1797~1828) completed in April 1816 when Schubert was 19 years old. However, it was not premiered until November 19, 1849, in Leipzig, more than two decades after Schubert's death. The 4th Symphony in C minor is Schubert's only completed minor key symphony; his other minor-key symphony is the Unfinished in B minor. He was following Mozart in this, who also only wrote 2 minor-key symphonies amongst the 41 he completed. Schubert himself gave the name 'Tragic' to the work.

The slow introduction of the first movement is modeled after Haydn's The Representation of Chaos overture to The Creation oratorio. The opening theme of the Allegro of the first movement derives from the opening theme of Ludwig van Beethoven's String Quartet, Op. 18 No. 4 in the same key. The second movement is in ABABA form, which would be a favorite form for most of Schubert's future symphonic slow movements. The themes in the B section are not new. They are developed from the Allegro theme of the first movement and the



[Fig. 1 1악장 슈베르트 서주부 주제(위),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 서곡 서주부(아래)]

장중한 서주부에 이어 제시되는 빠르고 열정적인 제 1주제는 같은 조성의 베토벤 현악 사중주 Op.18 No.4의 주제 후반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슈베르트는 베토벤 주제의 후반부 동기를 차용한 뒤 동일한 화성 진행 위에 세 개의 도약하는 음을 가미함으로써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Fig. 2 1악장 제 1주제: 슈베르트(위), 베토벤 현악 사중주 Op. 18-4 도입주제(아래)]

아름답고 서정적인 제 2주제는 반복되는 저음 오스티나토(Ostinato) 주제 위에 구성된 베토벤 5번 교향곡 4악장의 제 2주제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기의 형태와 구성이 꽤 닮아 있다.



[Fig. 3 제 2주제 전반부 동기: 슈베르트(왼쪽), 베토벤 5번 4악장 제 2주제(오른쪽)]

발전부의 시작은 모차르트 교향곡 제 40번 4악장의 발전부의 서두와 작곡 기법에 있어 동일하다. 모차르트는 제 1주제 동기를 유니슨으로 반복, 변주하면서 교향곡의 가장 으뜸음인 'G'음을 제외한 모든 음을 다 표현한 후 Fig. 4에서 보듯이 목관의 하행하는 긴 음으로 마무리하는데 슈베르트 역시 'Ab'음(2악장의 주요음)을 제외한 모든 음을 쓰면서 동일하게 마무리 짓는다.



[Fig. 4 1악장 발전부 시작: 슈베르트(위),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4악장 발전부(아래)]

2악장 ————— Andante  
두 번째 악장은 A-B-A'-B'-A" 형식으로, 이후 그가 다른 여러 작품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형식이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를 연상시키는 듯 찬송가풍의 차분하고 아름다운 첫 주제(A)가 현악에 의해 울려 퍼진다(Fig. 5). 오보에의 아름다운 화답에 이어 목관이 주를 이루어 큰 합창을 이루며 고결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 B부분의 주제는 1악장 제 1제를 변주한 것으로 A부분 주제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두 개의 대비되는 주

themes of the A section. The second appearance of B, the third return of A and the beginning of the coda have a sixteenth-note ostinato accompaniment added to help bring cohesiveness to the sections. This was a device that Beethoven had previously used in the slow movements of his Op. 18 No. 1 quartet and his Pathétique sonata. The minuet-like third movement is a scherzo in the A section, although the trio is slower and has a very different style. There is something very unusual about the rhythm of the A section, unusual rhythms very common to Brahms, who would not be born until 36 years later. The trio is slower and has a very different style. Nothing in this is a minuet, so the label is very wrong. The A section is most like a scherzo. The key is unusual too because after putting the 2nd movement in Ab major he moves to Eb major, which has a strong link to Ab major and is also the relative major of his original key, C minor. It returns to C minor, then eventually it moves to C major in the final movement. The 2nd theme is in Eb major, but there appears to be more going on, because there is something very important in Ab major. The complicated exposition leads to an usually inventive and surprising development section. It's rather delicate, more of a mood change at first, but then it heats up to a big finish, and the recapitulation is very different because it comes back in C major. That gives it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 themes differently and use more inventive modulations.

제군이 균형을 이루며 정제된 구성미를 갖는다. 마지막 A"에서는 베토벤이 즐겨 사용하던 변주기법이 사용되었는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의 2악장에서 주제가 반복될 때 내성부가 변주 장식하고 있다.



[Fig. 5 2악장 A": 슈베르트(왼쪽),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 후반부(오른쪽)]

### 3악장 ————— Allegro vivace - Trio

스케르초 풍의 3악장은 그 반음계 선율의 역동성과 헤미올라(3박 계통 안에서 2박의 느낌을 혼재시킴)의 뒤뚱 거림으로 앞선 두 악장과 큰 대조를 이룬다.



[Fig. 6 3악장 스케르초 주제]

장난기서린 경쾌함과 재치에 '비극'이라는 부제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교와 여자, 놀음을 좋아하고 비범한 창의성을 갖춘 19세의 천재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교육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악장에서는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는 이미 수백편의 작품을 쓰고 있었으며 친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음악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그리 비참하다 여기지는 않았다. 다만 예술 앞에 정직했던 그의 순수함이 음악 정규교육의 부재로 인해 맞닥뜨린 작곡가로서의 기술적 한계에 다소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로 보인다. 미뉴에트풍의 편안하고 따뜻한 트리오 색서는 이러한 '부제'에 대한 해석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트리오의 1악장 주제의 어두운 성격을 밝고 우하하게 반전시킨 변주이다.

### 4악장 ————— Allegro

베토벤 교향곡 5번의 3악장 주제를 연상시키는 첼로의 선율이 소개된다. 목관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1악장의 재현부의 제스처를 따르고 있다.



[Fig. 7 4악장 도입: 슈베르트(좌), 베토벤 5번 교향곡 3번 도입부(우)]

비극적 운명에 대한 짧고 분명한 귀뜸 같은 이 주제는 재현부 직전 인용된 후 곡의 전개, 발전에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 경쾌한 제 1주제는 1악장 제 1주제에서 파생되었는데 곡이 진행되어 투티에 이를수록 1악장의 본모습을 더욱 닮아간다.



[Fig. 8 4악장 제 1주제(위), 제 2주제(아래)]

밝고 단아한 제 2주제는 제 1주제 전반부 동기가 전위된 것으로 '비극'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을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다(Fig. 8). 각 주제와 그것들의 발전, 변주는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쳐흐른다. 특히 발전부의 조

Franz Schubert

성 변환이 아주 재미있는데 기능 화성의 전형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한다. 재현부에 이르면 베토벤 5번 교향곡의 피날레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조성은 C 단조에서 장조로 전환되고 오케스트레이션과 텍스처가 긍정적인 힘찬 에너지로 채워지면서 생기 넘치는 젊음의 활력을 노래한다. 비극이라는 부제가 반어적으로 들릴 만큼 열정적인 코다로 화려한 축제의 막을 내린다.

##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 요하네스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라단조, 작품번호 15번

독일이 낳은 천재 작곡가, 그 음악의 깊은 내적 성찰(省察)과 절제된 외침이 품격 높기로 유명한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가난한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놀라운 음악성은 7세부터 시작된 바이올린 레슨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일찍 빛을 보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청년기까지 매매춘이 성행하는 술집, 가극장 등지에서 연주 활동으로 돈을 벌며 집을 도와야만 했다. 그러한 어두운 유년시절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보수 기독교(독일 루터 교) 신앙 때문인지 그의 음악적 선택은 삶에 대한 분노와 저항보다는 갈등의 종교적 승화(昇華)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그의 음악 중 느린 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눈물과 간절한 울부짚음에 이어지는 승화된 체념(諦念)이 우리의 마음을 아련히 적신다. 그는 그의 나이 18세에 꿈에 그리던 행운을 만난다. 당대 독일 음악계의 대가들과의 만남, 특히 로베르트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Clara Josephine Wieck Schumann, 1819-1896)과의 인연은 그의 삶과 음악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브람스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슈만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브람스는 그를 영웅처럼 따르게 된다. 또한 그의 미모의 아내 클라라를 흠모(欽慕)하게 된다. 이 무렵 정신병을 앓던 슈만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자 자신이 가족을 해칠까봐 두려워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불행히 2년 후 죽게 된다. 이후 브람스는 평생토록 그의 집안을 돌보게 되고 미망인 클라라 슈만을 더욱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 무렵 브람스는 그녀와의 연주를 꿈꾸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을 쓰는데 그녀로부터 합동연주 제안을 거절당하고(사실 그는 클라라에게 청혼까지 하였지만 그녀는 정조를 지키기로 마음먹고 그의 청을 거절한다.) 교향곡으로 전환하였지만 실패하여 결국 1858년 피아노 협주곡으로 완성하게 된다.

### 1악장 ————— Maestoso



[Fig. 9 1악장 서주부 제 1주제]

'D'음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포효(咆哮) 같은 울림이 공간을 뒤흔들면 뒤따라오는 오케스트라에 의한 서주부 첫 주제가 25세 청년 브람스의 피 끓는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하다. 복잡해 보이는 선율의 힘찬 도약(위Fig. 9)은 사실(其實) 'Bb'에서 순차적으로 'G'음까지 내려와 서주부 2주제의 'F'음으로 연결되는 구성 위에 발전된 것으로 베토벤의 선율 작곡 기법과 매우 닮아 있다. 악장 전체에서 볼 때 이 서주부 제 1주제는 제시부 본 주제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 곧이어 제 1주제와 대조적인 성격의 서정적이며 차분한 서주부 제 2주제가 뒤따른다.



[Fig. 10 1악장 서주부 제 2주제]

가슴 시린 서러움을 이야기하는 듯 주제는 D major 화성과 d minor 화성(Fig. 10) 두 마디에 걸쳐 금세 교차

독일이 낳은 천재 작곡가, 그 음악의 깊은 내적 성찰(省察)과 절제된 외침이 품격 높기로 유명한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독일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가난한 더블베이스 연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놀라운 음악성은 7세부터 시작된 바이올린 레슨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지만 일찍 빛을 보지 못하고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청년기까지 매매춘이 성행하는 술집, 가극장 등지에서 연주 활동으로 돈을 벌며 집을 도와야만 했다. 그러한 어두운 유년시절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성적인 성격과 보수 기독교(독일 루터 교) 신앙 때문인지 그의 음악적 선택은 삶에 대한 분노와 저항보다는 갈등의 종교적 승화(昇華)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그의 음악 중 느린 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눈물과 간절한 울부짚음에 이어지는 승화된 체념(諦念)이 우리의 마음을 아련히 적신다. 그는 그의 나이 18세에 꿈에 그리던 행운을 만난다. 당대 독일 음악계의 대가들과의 만남, 특히 로베르트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Clara Josephine Wieck Schumann, 1819-1896)과의 인연은 그의 삶과 음악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브람스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본 슈만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브람스는 그를 영웅처럼 따르게 된다. 또한 그의 미모의 아내 클라라를 흠모(欽慕)하게 된다. 이 무렵 정신병을 앓던 슈만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자 자신이 가족을 해칠까봐 두려워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불행히 2년 후 죽게 된다. 이후 브람스는 평생토록 그의 집안을 돌보게 되고 미망인 클라라 슈만을 더욱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는데 이 무렵 브람스는 그녀와의 연주를 꿈꾸며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을 쓰는데 그녀로부터 합동연주 제안을 거절당하고(사실 그는 클라라에게 청혼까지 하였지만 그녀는 정조를 지키기로 마음먹고 그의 청을 거절한다.) 교향곡으로 전환하였지만 실패하여 결국 1858년 피아노 협주곡으로 완성하게 된다.

## Johannes Brahms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The Piano Concerto No. 1 in D minor, Op. 15, is a work for piano and orchestra completed by Johannes Brahms (1833~1897) in 1858. The composer gave the work's public debut in Hanover, the following year. It was his first-performed orchestral work, and (in its third performance) his first orchestral work performed to audience approval. The concerto was slow to find favor with early audiences, for it is a bold and daring work, both stormy and dramatic and tender and lyrical, and it is filled with youthful passion and relentless power. With it, Brahms produced a truly symphonic work in which the solo instrument and the orchestra are indivisibly joined as equal partners. Through the persistent efforts of its early champions, the concerto finally entered the standard repertory some thirty years after its premiere.

The first movement, Maestoso, has a grand orchestral introduction, dazzlingly dark and burnished in character. The piano's entrance, at first spare and restrained,

되어 나타나며 악장 전체의 근본을 이룬다. 이는 베토벤의 5번, 9번 교향곡과 브람스의 1번 교향곡에서도 중요한 작곡 기법으로 다뤄진다. 경과부 주제가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제 1주제가 반복된다. 이어 종결 주제군이 리드미컬하게 휘몰아치면 피아노 솔로는 마침내 사소한 듯 제시부의 제 1주제를 이야기한다.



[Fig. 11 제시부 제 1주제]

잔잔하면서 애잔한 피아노의 선율이 참 슬프다. 주제는 반복 후 서주부 제 1주제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대화하듯 이어간다. 그 힘찬 모습을 뒤로하고 서주부 제 2주제가 구슬프게 연주되면 조용한 가운데 서주부 경과부 주제가 마치 잔잔한 호수의 물결같이 아르페지오(Arpeggio) 음형으로 변주된다. 스승이자 그의 삶의 영웅과도 같은 슈만의 모습에서 발견한 슬픈 인가 아니면 클라라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애처로이 하소연하는 것인가. 잔잔한 물결 위로 일어나는 갈등은 이내 솔로 피아노의 기도와 같은 경건함으로 가라앉으며 차분히 제 2주제로 연결된다.



[Fig. 11 제시부 제 1주제]

찬송가풍의 제 2주제의 두 번 상승 후 하행하는 감정선이 아름답다.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함께 주제를 반복하면 종결 주제가 현(絃)과 호른(Horn)에 의해 팡파르처럼 울려 퍼지면서 제시부가 끝이 난다. 솔로 피아노가 이 평화스런 순간을 마치 거짓말처럼 만들어 서주부 종결 주제를 옥타브로 힘껏 때리며 내달려 내려오면 마치 싸우는 듯 오케스트라가 서주부 제 1주제로 답한다. 서주부 제 2주제가 저음현과 솔로 피아노에 의해 대조적인 음역대에서 교차되고 마치 서주부가 확장, 발전되는 듯 경과주제와 종결주제가 뒤엉켜 한바탕 폭풍우를 겪고 서주부 제 1주제가 장엄하게 다시 등장하며 재현부로 들어간다. 오케스트라는 제시부 제 1주제를 시끌벅적하게 외치고 제시부 종결주제를 통해 잠잠해진다. 피아노 솔로가 다시 제 2주제의 고요함을 연주하고, 오케스트라의 화답이 있는 후 솔로와 오케스트라는 거침없이 끝을 향해 함께 내달리는 것이 가슴 두근거린다.

## 2악장 Adagio

“클라라, 당신의 초상화를 이 음악에 그렸습니다.”



[Fig. 13 2악장 주제]

브람스의 고백처럼 이 악장은 그가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사랑의 독백이다.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의 미망인(未亡人)의 모습을 그리는 듯 시간의 흐름을 뒤로 한 채 바순이 1악장에서 그토록 강렬했던 근음 'D'음을 곱게 빛낸다. 스케일을 따라 내려오고 올라가다 'F#'음에서 머문 후 결국은 'D'음으로 되돌아오는 형태가 마치 그의 이를

eventually ascends to join the intensity and fervor of the orchestra. Brahms also creates intimate moments of chamber music throughout the first movement, weaving subtle woodwind timbres into the piano's softest dynamics, and eventually arriving at the pastoral and yearning second theme. Music of tremendous power and virtuosity follows, culminating in a triumphant Beethovenian climax. The second movement, Adagio, begins with a tender and aching chorale which is eventually taken up by the soloist. The movement plumbs the depths of Brahms's expressive range: it is a long, slow dance of startling emotional pathos. Orchestra members are often given extended melodies as the pianist accompanies them. The reverie is broken as a burst of martial virtuosity from the soloist signals the beginning of the Rondo. While this movement is the lightest of the three—offering bits of scherzando levity, and inspired in part by Brahms's admiration of Beethoven's piano concerto finales—it still retains the gravitas and weight for which Brahms is well-known.

수 없는 사랑을 묘사하는 듯하다. 브람스의 애타는 마음을 잘 대변하는 듯 현파트의 대선율(對旋律)이 주선율과 사진행(斜進行)하며 애절함을 더해 간다. 오케스트라의 율조림을 받아 피아노 솔로는 잔잔하면서도 더욱 간절하게 노래한다. 중간부에 직설적인 논조(論調)가 잠깐 스치듯 등장하지만, 그녀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는 자에게 축복 있으라(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라는 기도문을 써넣었다가 나중에 지워버릴 만큼 지독한 간절함이 눈 녹듯 흥분을 가라앉히고 솔로의 아름다운 빛깔만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 3악장 Rondo: Allegro non troppo

사랑의 애뜻함을 뒤로 남겨두고 냉혹한 현실로 돌아오는 듯, 그의 교향곡 4번에서와 같이 삶의 애환(哀歡)을 음악 본연(本然)에서 풀어나가는 듯한 솔로 론도(Rondo) 주제는 단호하고 결연하다. 그의 삶의 여정의 전환점을 열어 주었고 '멘토'가 되어 주었던 영웅 슈만의 몰락/부재와 더불어 클라라 슈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본인의 음악가로서의 내적 성찰과 반성 등이 혼재(混在)된 복잡한 순간에 그는 의외로 간결한 론도 주제를 제시하며 이 거대한 교향악적 협주곡의 결론을 내린다. 도약 상행하는 주제 선율 아래에서 역동적으로 하행하는 16분음표의 제스처는 집중성을 보여주고, 앞선 두 악장에서 보였던 도약, 정체, 상/하행 등의 제스처들이(Fig.9, 12, 13) 이 한 주제에 총체적으로 집약(集約)되어있다.



[Fig. 14 론도 주제]

힘찬 론도 주제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반복되어 주제군을 이루고, 짧지만 가슴을 저미는 감성으로 가득한 경과부를 지나면 론도 주제를 닮은 두 번째 주제가 등장한다.



[Fig. 15 두 번째 주제]

경과부 주제가 싱크페이션(Syncopation)에 의해 변형되어 다시 등장하고 론도 주제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재현된다. 악장의 중반부에 등장하는 새로운 주제는 사실 론도 주제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서정성이 풍부하고 긴장을 이완시켜 감정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Fig. 16 세 번째 주제, 푸가도 주제]

이 주제는 푸가도(Fugato)로 발전하는데 제 2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제 1바이올린 순으로 이어지다가 오케스트라 전체에 의해 론도 주제로 돌아오면서 재현부로 들어선다. 후반부는 론도 주제가 느리게 등장하여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조성하다가 론도 주제를 가지고 푸가도적인 응용을 통해 신나게 발전시키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글 작곡가, 지휘자 박희정

# 200th Anniversary of the Composition of the 'Choral' Symphony

송년음악회

베토벤 합창교향곡 작곡

200주년 기념 연주



국립합창단 소프라노 오미연 메조소프라노 조혜미 테너 이명현 베이스 영명현  
합창단 지휘자 김선정 예술감독 이태우



지휘 함신의

베토벤 |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번호 125 '합창'  
Beethoven | Symphony No.9  
in d minor, Op. 125 'Choral'

**매진입박**

12.27

FRI 7:30PM

LOTTE  
CONCERT HALL



## Mozart Flute Concertos

**Busoni**  
Berceuse élégiaque  
**Mozart**  
Flute Concerto No. 1,  
K. 313, G Major  
조성현, flute  
**Mozart**  
Flute Concerto No. 2,  
K. 314, D Major  
조성현, flute  
**Schubert**  
Symphony No. 6,  
'The Little', C Major

### 신년음악회

**Beethoven**  
Prometheus Overture  
**Dvorak**  
Cello Concerto,  
op. 104, b minor  
김민지, cello  
**Beethoven**  
Symphony No. 5,  
op. 67, c mi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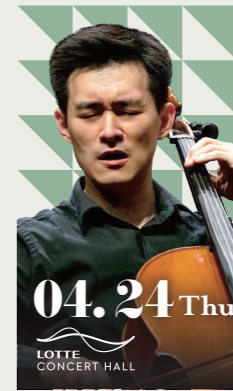
## Mahler 9

**Mahler**  
Symphony No. 9, D Major



## Welcoming Spring

**Cindy Cox**  
Dreaming  
a World's Edge (2022)  
아시아 초연  
**Elgar**  
Cello Concerto, op. 85,  
e minor  
Jiapeng Nie, cello  
**Schumann**  
Symphony No. 1 'Spring'  
op. 38, B Flat Major



## Remembrance Ravel and Shostakovich

**Mozart**  
Piano Concerto No. 21,  
K. 467, C Major  
유영욱, piano  
**Ravel**  
Le Tombeau de Couperin  
**Shostakovich**  
Piano Concerto No. 1,  
op. 35, c minor  
유영욱, piano  
**Ginastera**  
Variaciones Concertantes



# 2025 함신익과 심포니 송 MASTERS SERIES

### 영웅들을 추모하며

**Mozart**  
Symphony No. 40,  
K. 550, g minor  
**Mozart**  
Requiem, K. 626, d minor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 Sibelius Special

**Strauss II**  
Fledermaus Overture  
**Sibelius**  
Violin Concerto, op. 47,  
d minor  
송지원, violin  
**Sibelius**  
Symphony No. 5, op. 82,  
E Flat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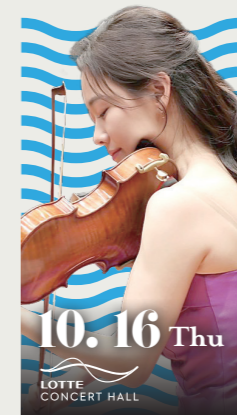
## Sir Stephen Hough Plays Grieg and Stephen Hough

스티븐 허프가 초연하는  
스티븐 허프 피아노협주곡  
**Hough**  
AGATA a Basque Fantasy  
for Orchestra  
**Grieg**  
Piano Concerto, op. 16,  
a minor  
**Hough**  
Piano Concerto  
한국 초연



## Beethoven & Bruckner

**Beethoven**  
Piano Concerto No. 3,  
op. 37, c minor  
김규연, piano  
**Bruckner**  
Symphony No. 1, c minor



### 송년음악회

**Beethoven**  
Symphony No. 9, op. 125,  
d minor 'Choral'  
김순영, 김선정, 이명현, 정인호,  
인천시립합창단





# 회원권 구매 특별할인

시즌패스  
Season Pass

Season Pass  
Special Discount



## 조기구매할인혜택

※ VIP석은 100석 한정

구분	석 등급	회차	원가	할인 후 가격
11월 31일까지 구매시	VIP석	10회	1,200,000원	900,000원
	R석	10회	1,000,000원	750,000원
	S석	10회	700,000원	525,000원
25%	A석	10회	500,000원	375,000원
	12월 31일까지 구매시			
20%	VIP석	10회	1,200,000원	960,000원
	R석	10회	1,000,000원	800,000원
	S석	10회	700,000원	560,000원
20%	A석	10회	500,000원	400,000원
	학생 특별 지원 할인			
100석 한정 (학생 인증 필수)	A석	10회	500,000원	200,000원
	B석	10회	300,000원	100,000원

## 티켓 구매 요령

전화 구매  
02-549-0046

e-mail management  
@symphonysong.com

우편 제출  
서울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홍은동,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심포니송



## 시즌패스

성명	연락처	E-mail
등급 <input type="checkbox"/> R석 <input type="checkbox"/> S석 <input type="checkbox"/> A석	수령 방식 <input type="checkbox"/> 현장수령(추천) <input type="checkbox"/> 자택 또는 회사 주소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6-49104 (심포니송)



# 심포니 S.O.N.G 법인 / 개인후원 안내



구분	연회비	예우 및 혜택	공통예우
마에스트로	3억원 이상	기업연주* 6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40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마스터즈	1억원 이상	기업연주* 2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30매 증정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 마에스트로 함신익 기업방문강연 - 마스터즈 시리즈 프로그램 북 전면광고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말러	5000만원 이상	기업연주* 1회 제공 2024시즌패스 - R석 20매 증정	*기업연주: 심포니 S.O.N.G의 실내악 그룹이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연주
브람스	3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2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12매 증정	- 뉴스레터 및 공연소식제공 - 심포니 S.O.N.G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북 후원자명단 게재
브루크너	2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8매 증정	- VIP 후원회의 밤 콘서트 초청 - 소장용 공연실황음원영상 증정
슈베르트	1000만원 이상	실내악연주 1회 제공 2024년 시즌패스 - R석 4매 증정	- 추가구매티켓 10%할인 * 하이든은 제외
베토벤	5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R석 2매 증정	
쇼팽	3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 S석 2매 증정	
모차르트	100만원 이상	2024년 시즌패스 4회 - A석 2매 증정	
하이든	1만원 이상		

문의 심포니 S.O.N.G 경영지원팀 02)549-0046

입금계좌 하나은행 206-910024-73904 (예금주: 심포니송)

후원회 수시 가입 가능

후원금액은 월 1만원부터 매월 분할 자동이체 납부가능  
후원금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 및 법인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Upcoming Concert

.. ) ( ..

12.07

서대문구 초청  
송년음악회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오후 5시  
무료 입장

12.26

미래그룹 초청  
송년음악회

더케이 호텔  
오후 7시

01.10

2025 마스터즈 시리즈 I  
'신년음악회'

롯데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티켓 판매중

01.18

서대문구 초청  
신년음악회

연세대학교 대강당  
오후 5시  
무료 입장

.. ) ( ..



## 'Melodia' 법인 후원약정서

신 청 인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주 소	_____		
	Mobile	_____		
	E-mail	_____		
약 정 금 액	※ 월기부금액 / 매월 25일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일 시 납	일시납 _____ 원	※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자 동 이 체 은 행 정 보	은행명	_____	예금주명	_____
	계좌번호	_____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거부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란을 채워주십시오

개인  또는 법인

약정금액 \_\_\_\_\_

성 명 \_\_\_\_\_

연 락 처 \_\_\_\_\_

###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06-910024-73904  
심포니송

- ※ 신청방법 : 약정서 작성 후 하단의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심포니 송 전화번호 : 02-549-0046 이메일 : management@symphonysong.com
- ※ 심포니 송 후원자는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후원해 주신 모든 금액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이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감,  
삶에 대한  
자신감

성형 MOLDING

피부 SKIN

메디스파 MEDISPA

비만 OBESITY

두피 SCALP

항노화 ANTI-AGING

지방성형 A FATTY MOLDING

성의학클리닉 A SEX CLINIC

세포재생전문클리닉 CELL REGENERATION CLINIC

L  
A  
H  
Y  
E  
O  
N

Tel. 02.3445.1155 Fax. 02-3446-6885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도산대로 420) 청담스퀘어 5층

... FA & BIO분야 ...

# 글로벌 종합 기술기업

이차전지장비, 디스플레이장비, 리니어시스템, 물류자동화 로봇, 산업용 및 의료용 레이저  
대한민국 장비산업분야 및 바이오 보툴리눔독소제제 미래에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 GLOBAL GOLF PLATFORM COMPANY GOLFZON NEWDIN GROUP

골프존뉴딘그룹은  
‘새로움과 즐거움, 유익함의 창출’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 골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웃·사회와 함께 동행하며  
늘 새로운 골프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GOLFZON NEWDIN GROUP



## 영 유아를 위한 수제작 토퍼 매트리스

3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한 땀 한 땀 탄탄한 토퍼를 제작해 드립니다.  
(맞춤제작 가능)

영 유아용 KC 인증 및 모든 안전 검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 새로운 커피 습관 : 언더프레셔

언더프레셔의 다양한 홈카페 컬렉션 제품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MARKET Kurly** **coupang** **NAVER** 에서 언더프레셔를 검색하세요.



## OFFLINE SHOP



### <언더프레셔 삼성점>

맛있는 커피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www.underpressure.co.kr



### <찾아오시는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37, 1층(삼성동)  
☎ 82 (0)2 2019 8990

# Wizard7

최적의 사이트 구축·운영·관리를 제공합니다!



**풍부한 기능 탑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각종 OS·DB·브라우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기본기능

- HTML5(웹표준)
- 반응형웹 대응
- WYSIWYG 에디터
- 편집 모드/사용자 모드
- 강력한 권한 설정
- 파일관리
- 웹 접근성
- 다국어 지원
- 높은 보안
- 메뉴 관리
- 백업/복구
- 워크플로우

※기본 기능의 일부를 기재

**모듈** 필요한 기능을 선택하여 자유자재로 사이트 구축

- 게시판/뉴스
- 이미지 슬라이드
- 인물 소개
- 폼빌더
- 일정관리
- 규정관리
- 연혁 관리
- 회원정보 수정

※상기 외 모듈의 다양한 기능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홈페이지를 위한 추가 솔루션

**S3 : eBMS**  
간행물 e북화 통합관리 솔루션

**S3 : HTML Converter**  
첨부파일 바로보기 솔루션